



탄자니아 하늘에는 킬리만자로, 바다에는 잔지바르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의 보석이다. 하늘에서는 만년설로 뒤덮인 킬리만자로(Kilimanjaro)를, 육지에서는 끝없는 평원 세렝게티(Serengeti)를, 바다에서는 투명한 해변을 자랑하는 잔지바르(Zanzibar)를 즐길 수 있다.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가까운 대륙 유럽에서는 한 달씩 휴가를 내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면서 오직 탄자니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많다. 그만큼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8월호에 소개한 탄자니아 세렝게티 국립공원에 이어 아프리카 최고봉 킬리만자로와 휴양의 섬 잔지바르를 둘러봤다.

글·사진 김수진 아프리카 순회 특파원

1 비행기에서 내려다 본 킬리만자로 정상. 2 잔지바르 본섬 가까이에 있는 프리즌 아일랜드. 과거 노예들을 가뒀던 섬이다.



아프리카 최고봉에서는 '폴레 폴레'만이 정답

킬리만자로에 들어선 순간부터 나갈 때까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바로 '폴레 폴레'(pole pole)다. 폴레 폴레는 동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스와힐리어로 '천천히'를 의미한다. 한국의 '빨리 빨리'와 발음은 유사하지만 뜻은 정반대다. 해발 5천895m의 킬리만자로는 다른 아프리카 관광지에 비해 산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현지 등반 가이드 중 일부는 이들에게서 배운 한국어를 약간 구사하는데 종종 "빨리 빨리 노(No)! 폴레 폴레 예스(Yes)"라며 웃는다.

킬리만자로에는 총 6개의 루트가 있다. 일부 루트는 오직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만 있다. 일반 등반객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마랑구 루트를 택했다. 다른 루트보다 등반이 수월한 편이라서 '코카콜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등반과 하산이 모두 가능하며 중간 중간 산장이 있어 텐트를 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다.

마랑구 루트의 출발점이 이미 해발 1천980m다.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안고 킬리만자로 초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정겹기 그지없었다. 붉은 흙에 녹음이 어우러져 한국의 어느 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폐로 마음껏 들이마시며 발걸음을 옮겼다. 신이 나서 앞서가자 서른 살 동갑내기 가이드 아민 하산이 역시나 "폴레 폴레"를 외치며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애 가장 추웠던 킬리만자로의 밤

킬리만자로의 첫날밤은 2천720m에 있는 만다라(Mandara) 산장에서 보냈다. 통나무집 안에 이층짜리 간이침대가 두 개 놓였고 그 위에 얇은 매트리스와 베개가 있었다. 전기는 오직 천장에 달린 등불에만 들어왔다. 동행한 포터가 얼굴과 발 정도를 씻을 수 있도록 아침저녁으로 따뜻한 물 한 바가지씩을 가져다줬다. 공용 식당에서 요리사가 만들어준 간단한 음식을 먹고 잠자리에 드는데 한기가 몸속을 파고들었다. 침낭 안으로 몸을 숨겨봤지만 추위는 가시질 않았다. 그래도 하루 종일 걸어 피곤했는지 함께 방을 쓰게 된 프랑스 커플의 사랑의 속삭임을 들으며 꿈이 떨어졌다. 살면서 경험한 가장 추운 밤이었다.

아침 일찍 만다라 산장을 출발해 3천720m의 호롬보(Horombo) 산장까지 길을 나선 둘째 날도 순조로웠다. 킬리만자로에는 다양한 자연환경이 자리잡고 있기에 첫째 날과 같은 녹음은 없었다. 대신 들판이 드넓게



3 킬리만자로 마랑구게이트의 모습. 4 마랑구게이트에서 등반을 준비하는 포터들. 5 킬리만자로를 오르는 등반객들. 멀리 킬리만자로의 세 분화구 중 가장 높은 키보(Kibo) 정상이 보인다.





1

1 호름보 산장에서 바라본 킬리만자로의 키보(Kibo) 정상. 2 무거운 짐을 이고 킬리만자로를 등반하는 포터들. 3 마랑구 루트에 위치한 만다라 산장. 4 호름보 산장에서 따뜻한 물로 발을 녹이는 기자.



5



6

5 해발 5천685m 길만스 포인트(Gilman's point)에서 내려다 본 모습. 6 마랑구 루트에서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베이스 캠프인 키보 산장에서 내려다 본 모습.



2



3



4



7

펼쳐졌고 그 사이에 길이 이어졌다. 멀리 키보(Kibo) 봉우리가 보였다. 킬리만자로의 세 봉우리 중 가장 어리고 높은 봉우리이자 이번 등산의 목적지다.

고비는 셋째 날 찾아왔다. 킬리만자로 정상을 오르기 전 마지막 베이스캠프가 되어줄 4천720m 키보 산장까지 가는 길에 돌이 많았다. 산이 조금씩 험해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호흡도 가팔라졌다. 고도가 높아져 산소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오후 늦게 키보 산장에 도착하니 긴장감이 감돌았다. 마랑구 루트에서 가장 힘든 여정을 앞둔 이들의 자연스런 분위기다. 한 한국인 남성은 심각한 고산병 증세를 호소하다 결국 호름보 산장으로 돌아갔다. 가이드로 일하는 하산은 “이 산장에서 고산병 증세가 나타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라며 “지난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무리하게 등반을 시도하다 이곳에서 사망했다”고 말했다.

한밤중 정상을 향해 등반, 추위에 구토까지

이른 저녁 식사 뒤 잠시 쉬었다가 자정이 가까워 다시 등반이 시작됐다. 캄캄한 밤에 정상 등반을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무엇보다 내가 오르고 있는 까마득한 산을 두 눈으로 보면서 오르다가는 중간에 포기하기가 쉽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두 번째로는 자정쯤 등반을 시작하면 일출이 떠오를 즈음 정상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위에 대비해 옷을 꺼내고 헤드 램프를 착용한 뒤 자신만만하게 발걸음을 땀다. 하지만 오를수록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다. 킬리만자로 정상의 칼바람이 몸속을 파고들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5분도 못 가 ‘브레이크 타임’(쉬는 시간)을 외치기를 되풀이했다. 구토까지 하고 말았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시 내려갈 일이 까마득해 이리저리 저러지도 못한 채 돌 위에 주저앉았는데 가이드가 “플레 플레”를 외치며 힘을 북돋웠다. 다시 조금씩,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조금씩 천천히’ 올라가니 마침내 키보

정신은 비몽사몽, 콧물과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산에 오르기를 약 6시간. 드디어 정상에 도착한 다른 일행의 불빛이 보였다. 해발 5천685m의 길만스 포인트(Gilman's point), 킬리만자로 세 개 분화구 중 가장 높은 키보의 최고 포인트 중 한 곳에 도착한 것이다. 네 발로 기다시피 올라가 만세를 하니 이미 도착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다. 다른 사람들이 준비해 온 자국 국기를 들고 사진을 찍는데 나는 태극기를 가져오지 않았다. 뭔가 기념할 게 없을까 고민하다 문득 배낭 속에 이고 온 회사 노트북 컴퓨터가 떠올랐다. 노트북을 든 채 만세를 외치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어 준 가이드 하산은 “10년 가이드 생활에서 노트북 들고 사진 찍은 사람은 네가 처음”이라며 웃었다. 이곳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더 걸으면 5천895m 우후루 정상(Uhuru Peak)이 나타나는데 더는 엄두가 나지 않았다. ‘등반의 완성은 살아서 돌아오는 데 있다’는 어느 산악인의 말을 떠올리며 이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했다. 다시 마랑구 루트의 게이트로 돌아와 받아든 킬리만자로 등반 증명서에는 ‘105617’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킬리만자로가 있는 모시에서 숙소가 있는 아루샤로 돌아와 하루를 쉬고 잔자니바로 향하는 경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륙하고 얼마 뒤 구름 사이로 킬리만자로 키보 정상이 보인다.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했다.

아랍·포르투갈·인도 문화가 뒤섞인 잔자니바르

아루샤 공항에서 이륙한 지 1시간 남짓 지나자 창문 밖으로 그야말로 에메랄드 빛, 아니 탄자니아에서만 나는 보석 탄자니아이트 빛을 발하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 말로만 듣던 인도양의 모습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후텁지근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얼마 전만 해도 추위에 몸을 떨었는데, 탄자니아가 얼마나 넓고 다양한지 새삼 느껴졌다.



7 길만스 포인트에서 바라본 일출 직전 모습. 8 길만스 포인트에 오른 기자.



1 잔지바르의 해변. 2 스톤타운 중심에 위치한 성공회 성당 건물 내부. 신부의 설교 단상은 노예들이 경매에 부쳐지던 곳이다.



3 스톤타운 중심에 위치한 성공회 성당 건물. 이곳은 과거 동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다.

잔지바르의 남서쪽에 자리한 옛 잔지바르 왕국의 수도 스톤타운은 탄자니아 본토는 물론 다른 아프리카 국가와도 매우 다른 분위기였다. 자치권을 갖고 있는 섬이라는 것뿐 아니라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포르투갈과 아랍 문명의 영향에 오랜 기간 교역을 해 온 인도 문화까지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잔지바르 인구의 90% 이상이 무슬림이다. 스톤타운에만 50개가 넘는 모스크가 있다. 미로처럼 펼쳐진 좁은 골목 사이를 걷다 보면 연꽃, 쇠사슬 등의 문양을 조각해 넣은 나무 대문이 눈에 들어온다. 문에 돌기가 솟은 대문도 있는데 코끼리를 막기 위한 장치로 인도의 영향이라고 한다. 길에서 마주치는 검은 부이부이를 한 여성과 하얀 칸두라를 입은 남성이 흑백의 조화를 이뤄 운치를 더했다.



4 화장실 문 아래에 노예를 묶던 고리가 있다. 5 리빙스턴의 심장이 묻힌 자리에서 난 나무로 만든 십자가.



6 성당 지하에 있는 노예 수용소로 쓰이던 방.

과거 동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

색다른 아름다움 뒤에는 슬픈 역사가 있다. 스톤타운은 과거 아프리카 노예무역의 중심지였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가나, 동아프리카에서는 잔지바르가 노예무역의 전진 기지 역할을 한 것이다. 스톤타운 중심에 있는 성공회 성당 건물이 바로 옛 노예시장 터다. 성당 내 신부의 설교 단상이 노예들이 경매에 부쳐지던 장소였다. 붉은 색으로 만든 바닥은 노예들의 피를 상징한다. 지하에는 노예 수용소로 쓰이던 방 두 개를 남겨뒀다. 원래 총 13개의 방이 있었는데 성당을 지으면서 모두 폐쇄하고, 각각 남성과 여성용으로 쓰이던 방 두 칸만 보존해뒀다. 초등학교 교실 반도 안 되는 크기의 작은 방에 60~70명이 머물렀다고 한다. 바닥에는 노예의 목에 채웠던 쇠사슬이 놓여있었다. 사람 머리보



7 잔지바르 스톤타운 골목.



8 잔지바르 향신료 농장 입구. 9 향신료 농장에서 립스틱 염매를 입에 발라 보여주는 투어 가이드.

다 작은 크기의 구멍이 유일하게 밖으로 난 창이었다. 1830년에서 1873년 사이 잔지바르에서 아랍과 서아시아 등지로 팔려나간 노예만 6천만 명이라고 한다. 1873년 영국의 탐험가 리빙스턴이 당시 이곳을 통치하던 술탄을 설득해 노예무역을 끝냈다. 성당 한 편에는 리빙스턴의 심장이 묻힌 자리에서 난 나무로 만든 십자가가 걸려 있다. 리빙스턴은 잠비아에서 풍토병에 걸려 숨을 거뒀는데 그를 따르던 하인이 그의 심장을 큰 나무 아래 묻었고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영국으로 보냈다.

잔지바르, 향신료 투어·블루 사파리 등 인기

잔지바르에서는 다양한 투어도 즐길 수 있다. 스톤타운의 곳곳을 둘러보는 투어와 향신료 농장을 둘러보는 투어, 인도양 한가운데서 스노클링을 즐길 수 있는 블루 사파리 투어 등이 대표적이다. 향신료 농장에는 향신료의 원료가 되는 식물 수십 종이 자라고 있고 이들을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나무숲이 우거져 삼림욕하는 기분이 든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걸다 보면 바닐라, 후추, 카레 등 우리에게 친숙한 향신료가 나는 식물부터 현지인들의 화장품으로 쓰인다는 립스틱 염매, 모기 퇴치제의 주재료인 레몬그라스까지 다양한 식물을 만날 수 있다.

블루 사파리 투어는 해변에서 배를 타고 나가 스노클링을 한 뒤 인근 섬에 배를 정박해 놓고는 해산물 바비큐 점심을 즐기는 투어다.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는 과정도 즐거운데 푸르다 못해 투명한 인도양에 몸을 담그고 아래를 내려다보면 광고 속에서나 보던 형형색색의 산호초와 물고기를 '4D'로 만날 수 있다. 점심으로 나오는 해산물 바비큐도 푸짐하다. 바닷가재에 생선구이, 해산물 카레 등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다 탄산음료와 맥주까지 제공된다. 꼭 투어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다.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능귀 해변에 앉아 인도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모래는 밀가루처럼 곱고 하얗다. 바다는 하늘과 좀처럼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해변을 따라 식당과 바가 펼쳐져 있어 아무 곳이나 들어가 칵테일을 훌쩍이 다 보면 어느새 해가 지기 시작한다.

잔지바르 동남쪽에 있는 파제 해변도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분위기는 능귀 해변과 다르다. 이곳은 바람이 센 편이라 카이트 서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말 그대로 카이트(kite·엔)를 띄워 돛처럼 이용해 방향을 조정하면서 서핑을 하는 레포츠다. 이곳에는 카이트 서핑을 알려주는 투어 업체도 있다. 푸른 바다와 하늘을 배경으로 날아다니는 알록달록한 카이트가 여행객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